



미동부기아대책기구는 20일 기쁨과영광교회에서 2019년도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권캐더린 목사를 회장으로, 박이스라엘 목사를 사무총장으로, 박진하 목사를 감사로 추대했다. 앞줄 왼쪽에서 3번 째가 신임 회장 권캐더린 목사

“시련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새 출발하자”

미동부기아대책기구 체제 정비, 새회장에 권캐더린 목사

미동부기아대책기구는 20일 (금) 오전 10시30분 기쁨과영광교회(담임 전희수 목사)에서 2019년도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권캐더린 목사를 회장으로, 박이스라엘 목사를 사무총장으로, 박진하 목사를 감사로 추대했다.

110명의 해외 불우 어린이들을 도우며, 중남미 지역에서 선교 사업을 펼치고 있는 미동부기아대책기구는 금년 하반기에 발생한 회장 유고 상황으로 인하여 힘든 연말을 보내고 있다. 미동부기아대책기구는 금번 정기 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고, 새로운 각오와 바람으로 2020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 정관의 영문 명칭을 ‘The Bread and Gospel of Eastern America, Inc(TBGEA)’로 변경하고 ‘회장, 사무총장, 이사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임기는 1년’으로 ‘사무총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과 사무총장,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는 사무총장이 대행하고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정관 개정을 통하여 기구의 운영을 사무총장 중심으로 확립해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최소 2년에서 최장 4년까지 한 사람의 사무총장이 기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됐다.

2년으로 되어 있던 회장의 임기가 1년으로 단축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정기 총회까지로 되어 있던 회장 이종명 목사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새로운 회장으로 권캐더린 목사를 박수로 추대했다.

회장으로 추대된 권캐더린 목사는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기에 두렵고 떨린다. 회장의 자리에 세워 주셔서 감사하지만, 많이 부족하다.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기아 대책은 박수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인데, 다시 한번 이것을 사명으로 하여,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당선 인사를 했다.

정기 총회에 앞서 12월 월례 예배가 있었다. 박진하 목사의 사회로, 김인한 장로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 봉독, 김사라 목사 등의 오카리나 특주, 전희수 목사의 설교, 한준희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전희수 목사는 사무엘상 4장 12-14절을 본문으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전 목사는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을 당한 미동부기아대책기구를 돌아보며, 어려움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했다.

전 목사는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듯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승리보다 패배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올해의 어려운 사건을 통해 미동부기아대책기구가 더욱 더 발전하고 사명을 찾는 단체로 나아갈 줄 믿는다. 연말과 신년을 맞아 더욱 성장하는 기회를 주시길 위해 이런 어려움을 주신 줄 믿는다. 더욱 더 에벤에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자”는 요지의 말씀을 전했다.

(기사·사진 제공=복음뉴스)